

IR News Letter

2018년 4월호
 (주)포스코대우 IR섹션
 Tel. 02-759-3469

“분기 기준,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”

☐ '18년 1분기 실적 종합

▷ **매출액, 전분기비 4,343억원(+7.6%) 증가한 6조 1,710억원**

영업이익 전분기비 541억원(+56.2%) 증가한 1,502억원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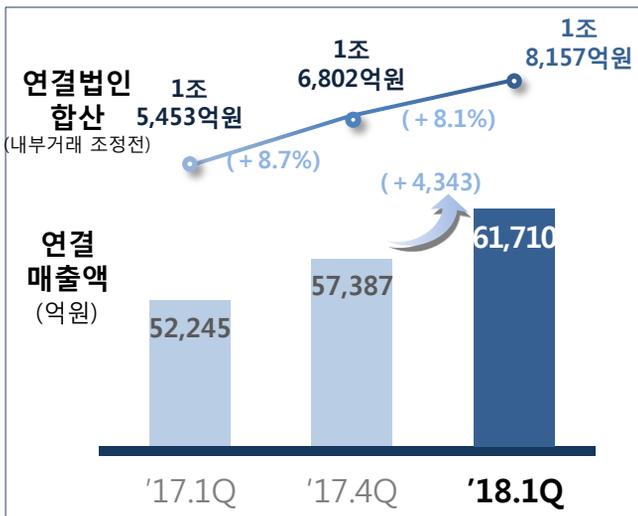
당사는 이번 1분기 매출 6조 1,710억원(전분기비 +7.6%, 전년 동기비 +18.1%), 영업이익 1,502억원(전분기비 +56.2%, 전년 동기비 +36.2%), 세전이익 1,26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.

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실적으로, 영업이익률도 무역 부문 호조 및 가스전 판매 증가로 전분기 1.7%, 전년 동기 2.1% 대비 대폭 신장된 2.4%를 기록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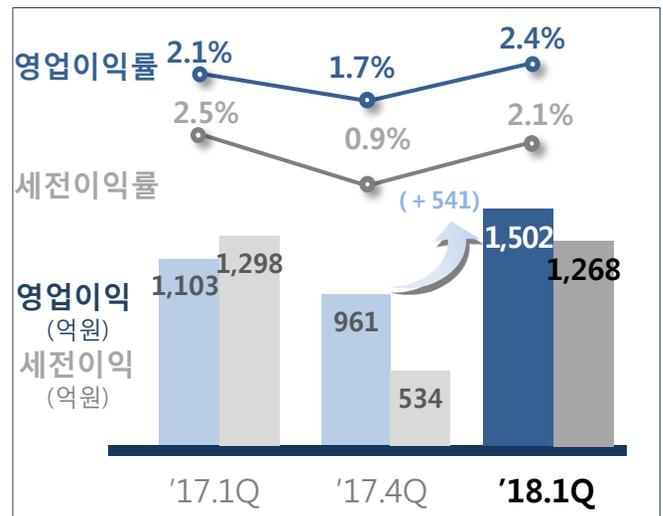
당사는 한 층 강화된 회사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, 이를 통해 금년 목표인 5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

(※실적발표자료 : 당사홈페이지 투자정보-재무정보-실적보고서 게시판 참조)

매출액 (연결)



영업이익 및 순이익 (연결)



▣ '18년 1분기 실적 상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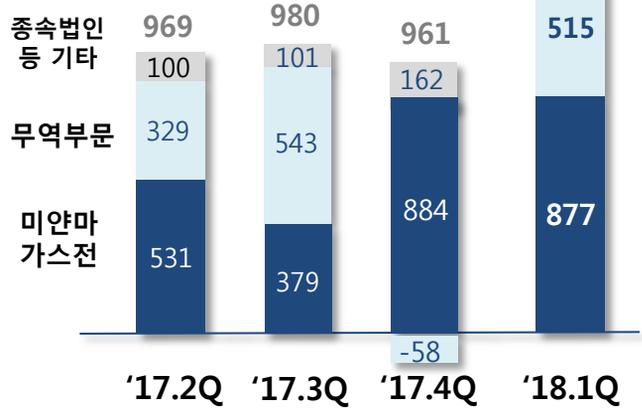
매출액 호조세는 철강 부문을 위시한 트레이딩 부문의 매출 확대에 기인합니다.

세부적으로는 빌렛, 슬라브 삼국간 판매 확대, Fuel-Oil 삼국간 공급 및 비철, 식량 사업 확대 등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기 최대인 6조 1,7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.

영업이익은 트레이딩 부문 및 가스전 판매 호조세, 지난 3년간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바탕으로 분기 최대 실적인 1,502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.

※ 주요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

(단위 : 억원)



▷ 미얀마 가스전

- 1분기 판매량 531억ft³ (일산 5.9억ft³)
- 영업이익 877억원 (비용 배부전 942억원)

'17년 4분기부터 이어진 중국 및 미얀마의 가스 수요 증가 영향으로 계약물량 일산 5억ft³를 초과한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세부적으로는 1분기에 중국으로 일산 5억ft³, 미얀마로 일산 0.9억ft³를 공급하였습니다.

가스 수요가 발전 및 난방 수요 등으로 구성됨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판매량은 일부 하락할 수 있으나, 중국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높아진 가스 수요를 바탕으로 2분기 역시 판매 호조가 예상됩니다.

※ 분기별 가스 판매량

(단위 : 억ft³)

	17.1Q	17.2Q	17.3Q	17.4Q	18.1Q
중국	381	291	210	473	449
일산	4.1	4.4	2.3	5.1	5.0
미얀마	86	60	52	68	81
일산	0.9	0.9	0.6	0.7	0.9
계	467	351	262	541	531
일산	5.0	5.3	2.9	5.8	5.9

▷ 철강본부

- 영업이익 384억원, 철강 판매량 333만톤(전분기比 26.6% 증가)

전반적인 수요 증가, 포스코와의 협업 강화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호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. 품목별로는 자동차강판, 냉연, 스테인리스가, 지역별로는 유럽, 아시아向 판매가 활발하였습니다. 또한, 포스코 WP제품 취급량 및 내수 시장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, 포스코 및 계열사, 해외 생산 기지向 원료 공급도 증가하는 등 포스코 그룹사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.

▷ 물자화학본부

- **영업이익 101억원** (전분기比 91억원, 전년동기比 76억원 증가)

물자화학본부 호조세는 주석 판가 상승으로 인한 비철사업 이익 호조, 이집트向 러시아産 밀 공급 호조에 힘입은 식량사업 흑자전환에 기인합니다.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구조조정 (적자 품목 및 부실 거래선 퇴출) 및 강화된 영업 및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대폭 향상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, 향후에도 RPC*등 투자자산과 연계된 영업 활동으로 식량 사업의 이익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(*RPC : RICE PROCESSING COMPLEX, 미곡 종합 처리창)

▷ 무역 및 투자 법인

- **영업이익 135억원** (5개 분기 연속 100억원 이상 달성)

무역법인에서는 인도 무역 법인이 포스코 마하슈트라向 철강 현지 공급 확대로 **41억원**의 이익을 달성하였으며, 이태리 무역법인 또한 유럽向 철강 판매 증가 영향으로 **11억원**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.

투자법인에서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운영하는 IPP(민자발전소)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POM 및 LAE 법인에서 **38억원**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.

무역 및 투자법인의 경우 매 분기 법인별 이익은 부침이 있으나, 이익원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분기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, 전반적인 투자 사업의 진전을 통해 기저 이익 규모는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▷ 영업외손익

순이자비용은 225억원으로 과거 평균치 보다 증가하였는데, 이는 올 1분기 LIBOR 금리 상승에 따라 환가료 등의 무역 금융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 美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이자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비용의 상당 부분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가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순이익 측면에서 부담은 제한적입니다.
(※ 참고 : 3개월 Libor 평균치 : '17.1Q - 1.06% → '17.4Q - 1.46% → '18.1Q - 1.92%)

관계기업손익 중 미얀마 육상 가스관(SEAGP)은 노후된 파이프 교체로 인한 수리비 증가 및 Toll비 정기 조정으로 **전분기 대비 69억원 감소한 136억원을 기록**하였으며, 그 외 암바토비 니켈 광산(DMSA/AMSA)에서의 지분법 손실 영향으로 관계기업이익은 **총 118억원을 기록**하였습니다.